



라운아띠 5기 태극팀 6월 보고서

6월 활동내용



한국음식의 날

중간평가단 방문

혜영단원이 아팠어요

학교소개

카렌마을 방문&메사리앙 시장

한국소개&한국어

패션쇼

학교소개 및 에세이

6월

1



2

3
중간평가팀
방문

4
이혜영 단원
퇴원

5



6

7



8

9

10



11
산캠프
YMCA
한국음식의날

12



13
라차파록차
학교생활
시작!

14
카렌마을
방문

15
기숙사
수업시작

16



17

18
메사리양
시장

19



20



21

22



23

24
전통의상
패션쇼

25



26

27



28

29



30





쌈캠프 YMCA 한국음식의 날

팀회의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활동,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경캠페인, 연청이 시술을 위한 모금운동, 한국음식 시사회 등. 하지만 시간과 준비조건 등을 고려해 쌈캠프 YMCA 주말학교에서 한국음식 시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말학교에 방문하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 재료와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메뉴는 김치전과 김밥. 토요일 오전

오 11시, 40인분을 목표로 전날 채소며 김치 등 장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6월 11일 토요일, 서둘러 아침식사를 끝내고 바로 요리로 돌입. 김밥에 들어갈 오이, 당근, 시금치 등 채소와 계맛살을 손질하고 계란 오라이를 부치고, 김치를 썰고 반죽을 하고 ... 정신 없이 40인분의 요리를 하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시연할 장소에 의자며 채상을 세팅하고 포스터며 재료 소개 프린터를 붙이니 어느새 40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가 모여들었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 한 박까지 후다닥 챙겨 입고, 시연회에 들어갔습니다. '데데 니 크 아라이 카~?' (애들아 이걸 뭐니?) 하며, 김밥 재료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만드는 과정을 선보였습니다. 김밥은 만드는 과정이 쉬워서인지 특히, 어머니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준비한 음식을 접시에 담아 YMCA 건물을 돌아다니며 시사회를 했습니다. 40인분의 음식은 10분도 안돼서 동이 났고, '아로아이 막막' (정말 맛있어요) 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YMCA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먹고 싸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활동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시도한 최초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을 준비하며, 우리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일회성 단기 행사에 그쳤지만 위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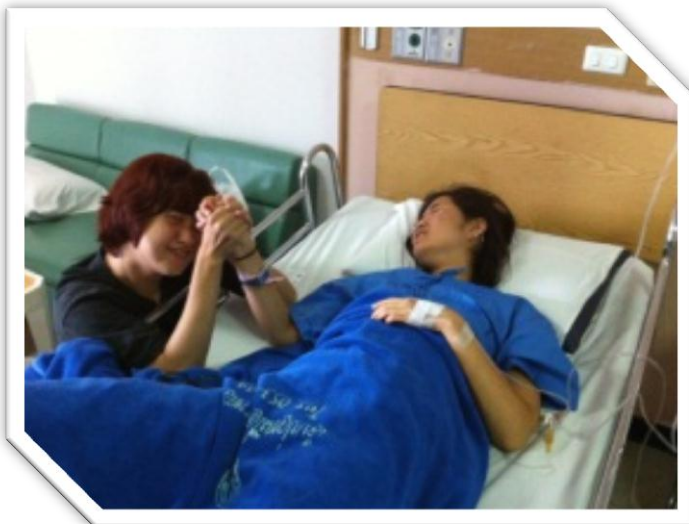
중간 평가단 방문

6월 2,3,4일 일정으로 한국에서 중간 평가단이 방문했습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님, 아산YMCA 박진용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아나 간사님 이렇게 세 분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3일 팽남투 학교에서 선생님들, 태극 YMCA 스텝, 평가단이 모인 가운데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나무를 심으며 35oppm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중간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다같이 쌤캠핑 YMCA로 이동했고 그날 밤, 이아나 간사님은 쌤캠핑 YMCA에 머무르며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ome of peace의 집에 모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이야기, 팀에 관한 이야기, 개인적인 고민들. 그동안 쌓아두었던 혹은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중간평가단이 돌아간 후, 몇 번의 팀회의를 거치며 활동 및 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팀원 개개인의 의견을 확인하며 그 의견들을 공유하고 때로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개선사항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막내 이해영 단원이 아팠어요!!!

5기 태극팀 막내 이해영 단원이 아팠습니다. 40도에 이르는 고열과 구토, 허리통증으로 결국 병원에까지 입원했습니다. 병의 원인은 극도로 소변을 참아서 생긴, 세균감염. 소변을 계속 참다보니 소변 속의 세균이 허리까지 올라가 허리통증이 생겼고, 고열 역시 신장이 안좋아 생긴 증상이라고 합니다. 애초 사흘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모두가 걱정했지만, 다행히 증상이 호전돼 입원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 뒤로 이해영 단원 및 모든 단원은 소변을 참으면 큰 일 난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면 바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학교소개



우리가 약 한 달 동안 활동하게 된 학교는 라차프라차낙로 제21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1992년에 설립됐으며 매웅손 멜라노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로얄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산부족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이들, 한부모 가정인 아이들, HIV질병을 가진 아이들,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던 아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식사, 의료 등이 제공됩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으며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현재 53명의 선생님과 9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아침 5시 기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석체크와 아침 몸풀기 운동을 하고 학교 청소 및 준비. 아침 7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8시 조화, 8시30분 수업시작, 11시30분 출석체크와 점심식사, 12시30분 수업시작, 오후 4시30분 종료, 5시 저녁식사, 7시에는 각 기숙사에 모여 리더십과 관련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또한 저녁시간에 각자가 속한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밴드부, 전통무용, 전통악기 등을 배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학생들이 각자가 속하는 부족의 전통의상을 교복으로 입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한 주말여행

우리는 선생님들의 배려로 학교 근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계획은 매 주말마다 근처 지역으로 여행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편이 원활하지 못해 아쉽게도 매주 가지는 못하고 고산부족 카렌마을과 매사리양 시장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나월달 인타논 산에서 가본 적 있는 카렌마을입니다. 카렌족이란, 티벳에서 오래한 부족으로 미얀마와 태국 고산지대에 사는 최대 소수민족입니다. 여기 학생들 대부분은 카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처 카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카렌마을은 양털을 이용해 직접 실을 뽑고, 그 실로 의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과 커피를 제배해 스타벅스와 같은 회사로 납품하는 일 그리고 마을을 관광 상품화해서 카렌마을을 체험하면서 머물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방문했을 때, 납품용 커피를 만들고 실을 뽑고 계셔서 이 모든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잠시나마 일손을 도와드리며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시원한 산바람과 단비를 보며 오랜만에 여유와 평화로움을 즐기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매사리양 시장에 갑니다. 우리가 사는 학교 근처에 마켓이 없어 필요한 물건들이 있던 사항이어서 모두가 신나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열리는 매사리양 시장은 우리나라 7일장과 비슷했습니다. 인근에서 큰 시장으로 손꼽히는 만큼 다양하고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물건들과 먹고 싶던 과일 등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함께 간 선생님의 가족들을 만나 같이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원을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했지만 가는 길에 비가 와서 사원은 다음 번을 기약하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어 수업 & 한국 소개

우리는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보이'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한국어에 대해 가르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 한국어 클럽을 매주 한 시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며 연예인의 한국어 이름을 지어주고 기본적인 자음, 모음과 간단한 단어를 읽는 수준까지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하였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수업시간을 원래 배당된 주당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배당된 시간은 하루만 운영되었고, 이후 정규수업 시간도 학생 수가 들쭉날쭉 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원인이기 보다는 학교에서 수시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문제였던 듯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저녁시간마다 한 기속사씩 돌며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터 '잘 가요' 까지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났을 상황에서 가벼운 자기소개를 포함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자기소개 한국어를 가르친 이후에는 배우고 싶은 한국어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가르치는 중간에 학생들로부터 카렌족(태국북부 고산지대에 사는 민족입니다. 이 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은 카렌족입니다.)의 고유 언어도 몇 가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두 가르친 이후에는 기타를 치며 한국노래를 불러주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기속사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라온아피 단원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수업시간을 할애하여 가벼운 한복을 입혀주고 한국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한 주에는 담당 선생님들이 치앙마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한복 입혀주기는 손을 들어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혀주고 3인 1조(남자1, 여자2)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손을 들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무섭게 손을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학생들의 숫자가 매우 적어 남학생들이 모두 입어본 후에는 라온아피의 두 남자단원이 한복을 입고 여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매우 더운데도 불구하고 한복입기에 열광하는 학생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소개는 한국의 위치, 음식, 명소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위치는 지도와 함께 태국에서 얼마나 먼지를 비교해 주었습니다.

음식은 한국음식 소개 동영상을 보여주며 어떤 한국음식을 들어봤고 먹어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명소는 남산과 드라마 촬영지인 남이섬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남산에는 커플들이 자물쇠를 서로 얹어
거는 장소가 있는데 남자친구와 가고 싶다는 여학생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태국어로 소통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높은 관심 덕에 대부분의 한국 알리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
였습니다.



태국전통의상 패션쇼

24일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각 기숙사 대표 학생과 담당선생님들이 함께 태국 전통의상을 입고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매력을 뽐내며 워킹을 하는 패션쇼입니다. 우리도 각 기숙사 대표학생들과 짝을 이룬 패션쇼에
참가했고, 그 덕분에 태국 전통의상을 입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아침부터 혼자서 입기 힘들게 만큼 복잡한 태국전통의상을 입고 그에 어울리는 화장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
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 머리 장식과 화장까지 예쁘게 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
졌습니다. 태국에 와서 태국전통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입어보는 것은 모두가 처음이라 생소했지만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패션쇼에 참가하게 된 사람들은 각자 캐릭터가 하나씩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표와 김태훈 단원은 호위무사, 김지연과 이아나 단원은 귀족, 이혜영 단원은 인어공주로 모두 태국 전통 옷을 입고 패션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정표와 김태훈 단원은 학교의 인기 선생님답게 워킹 할 때마다 여학생들의 환호를 한 몸에 받았고, 이아나, 김지연, 이혜영 단원 또한 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당당하게 워킹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연기한 단막극과 태국 전통 춤 그리고 댄스동아리 학생들의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같이 공부 하던 학생들의 평소와는 다른 끼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정한 대상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즐길 수 있었기에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소감

김태훈 단원

학교생활

이전학교에서는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가르쳤었다. 하지만 새로운 학교에 와서는 우리나라 학년으로 고2, 고3에 해당하는 큰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 동안 어린아이들 가르치느라 진이 빠져있던 나에게 큰 희소식이였다. 가르치게 된 과목은 수학, 물리 그리고 영어이다. 수업시간은 각 과목당 약 3시간씩 1주일에 약 10시간을 수업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개인과외를 하며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다. 그때 힘들었던 점은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한국말로 한국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도 힘든 수학적을 태국어로 태국학생들에게 시도하려니 막막함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태국 담당선생님께 이론수업을 부탁 드리고 그런 다음, 문제풀이 형식으로 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처음 1주일동안은 민망함과 답답함에 수업시간 내내 그저 멧쩍은 웃음만 지었다. 설명을 하고 있으면 학생들은 이해 못한다는 표정으로 나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거나, 내 엉성한 태국어 때문에 크게 웃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 중간 중간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한국 이야기를 섞어가며 집중을 이끌어 내고, 문제를 설명하고 완벽히 이해시키지는 못했지만 전과는 달라진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새로운 학교와 수업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다.

개인소감

전교생이 고내 기숙사에 거주하고, 새벽 5시에 체조, 7시 아침식사, 8시 국기계양식, 11시 30분 점심식사, 17시 국기강하식, 17시 30분 저녁식사, 21~22시 취침. 학생들과 함께 우리도 같은 일정으로 생활하고 있다. 마치 군대를 다시 와있는 기분이다. 처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해 하며 '멍' 한 상태로 지냈었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 적응 할 때쯤, 이런 규칙적인 생활에도 적응 되고 있었다.

태국에서의 한류 열풍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오직 한국 남자라는 이유 하나로 평생 동안 누릴 인기를 여기에서 만끽하고 있다. 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사랑해요', '멋져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안녕' 하고 이야기 하면 학생들은 '까약' 하고 비명을 지른다. 수업을 할 때, 사진기를 가져와서 사진을 찍는가 하면 돌아다니다가 사진 같이 찍

어달라는 부탁까지 받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즘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저녁에 학생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주말이면 선생님들과 함께 근교로 여행도 가고, 저녁때는 학생들 기숙사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수업 외의 시간을 보낸다. 학교에서 일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곧 라인아피로서의 활동도 딱 한 달 남았다. 끝나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안일한 마음과 생각들을 다잡고 지금 순간부터 다시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의 나로 만들어야겠다. 앞으로 30일. 마무리를 잘해 후회 남지 않는 5개월의 태극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이정표 단원

학교생활

제가 맡은 수업은 컴퓨터, 그 중에서도 포토샵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에 포토샵을 배운다는 것이 저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담당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하루에 한 클래스(1~2시간)를 가르쳐 한 과목을 가르치는 이유도 없었지만 비교적 여유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수업은 후에 여유로움이 아니라 나태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원래 여유로웠던 시간표는 애기치 않은 이유로 더욱 많이 비게 되었습니다. 정전이 빈번히 일어나 컴퓨터를 아예 사용 못하는 시간도 많았고, 학생들이 가끔 어떤 일에 동원되어 학생이 없어 수업을 못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외부적 원인이 있긴 했지만 그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저 또한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소 심신이 지쳐있기도 했고 의욕을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수업 이외에 한국어 수업을 매주 맡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태훈이형과 혜영이의 도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까 막막한 터에 태훈이형이 거의 수업을 이끌어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어 수업이 끝이 흐지부지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소감

개인생활은 비교적 편했습니다. 침실은 개미가 많은 것이 다소 심각하긴 했지만 견딜 만 했습니다. 그보다 힘든 것은 빈번히 일어나는 정전이었습니다. 전기 없이 지낸다는 게 상상조차 되지 않았는데 잠깐이지만 전기가 없으니 답답함이 심하였습니다. 이왕의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불편함보다 학교생활에서 마음에 깊게 새겨진 것은 학생들로부터의 관심이었습니다. 여학생이 많다 보니 외국에서 온 태훈이형과 제가 신기하고 관심이 갔던 모양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 저를 세워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도 하고, 인사하며 웃어주면 수줍어하며 웃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아이들에게 너무 차갑게 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차갑다는 말을 가끔 듣는데 고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것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듯 합니다. 개인반성의 필요성도 많이 느껴지만 그것 보다는 영감이라고 해야 할까..... 무언가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무언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태껏 보고 듣지 못한 것을 접한 후의 신선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비슷한 듯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느낌을 찾기보다 받은 것들을 정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두 오전이든 아니더라도 얻은 것들을 느끼 대부분을 한국까지 가져가고 싶습니다. 정리된 것들을 가지고 한국에 갔을 때 어쩌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옛날과는 다른 사고를 하고 있을 저를 그려봅니다.



이혜영 단원

학교 생활

새로운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산캠프에서 5시간 떨어진 이 학교는 고산부족을 위해 양이 설립하고, 지원해주는 학교로 학생들이 900명이나 되는 이전에 있던 팡남투 학교보다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저는 팡남투 학교에서 초등학교 2, 3학년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학년을 맡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바람대로 저는 중학교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수업을 해야 하고, 각 학년별로 교과서가 준비되어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과는 달리 매주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과외와 멘토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와 똑같이 가르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툰 태국말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과서 본문을 읽어주고, 그것을 태국어로 설명해서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기초적인 태국어 밖에 하지 못하는 저에게 큰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담당선생님과 함께 나누며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단원마다 중요 문법을 숙지시키고, 학생들과 함께 worksheet를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서 문법 연습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작은 것 하나 하나 예를 들면서 수업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1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어느새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손, 발짓을 섞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듯이 학생들은 더 재미있어하면서 더 큰 호응을 줬 수업시간 내내 신나게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소감

우리 학교는 새벽 5시에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학생들은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에 3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우리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학생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감독하며, 이들에 한번씩 각 기숙사마다 한국어 수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들을 잘 지켜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귀찮아져서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실 밖에서의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영어 수업은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2번씩은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을 제외한 학생들과는 말 한마디도 못해본 친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밀려오는 피곤함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틈타 기숙사에 들어가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돌아해보면 그들에게 먼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했는데 그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7월 중반부로 들어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욱 더 소통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라온아띠 단원으로서의 생활을 슬기롭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김지현 단원

학교생활

내가 맡은 학년은 초등학교 4·5·6학년으로, 주로 영어 수업과 미술, 놀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요일마다 스케줄이 다른데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5시간 수업이 있고, 나머지 날에는 3시간 정도의 수업이 있다. 먼저, 영어 수업은 YMCA 영어 책을 복사해서 수업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초반에는 영어수업 1시간, 놀이 활동 1시간을 번갈아 가며 진행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는 영어수업 1시간이 버거운지 수업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다. 더욱이, 수업시간은 점심식사 뒤여서 조는 학생들도 많았다. 한 학급당 40명에 이르는 학생을 모두 집중시키기란 힘든 일이었다. 아이들도, 나도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고민했다. 결국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하면서 즐거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서로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하여, 영어수업 시간을 줄이되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새종이로 목걸이 만들어서 게임 하기, 한국 전통 문양 채갈피 만들기, 오오박스를 활용한 상자 만들기 등 공작수업과 함께 다양한 야외 체육활동을 병행했다. 그 결과, 여시나 아이들은 영어수업에선 보기 힘들었던 집중력과 흥미를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초등 부는 몸을 사용하는 활동들이 수업의 집중력과 친밀함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 밖에도 한국 소개 시간을 가지면서 한복 입어보기, 전통 음악, 춤 감상하기, 한국 음식 알아보기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청각적 자료에 의지한 피상적인 한국소개에 그치고 말았다. 아이들을 위한 흥미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부딪히는 한계점인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개인소감

‘있는 그대로 볼 것. 나의 선입견이나 기준을 갖다 대며 멋대로 판단하지 말 것’.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요구되며, 더 연습해야 될 것들이다. 아이들과 (특히, 어린 초등부) 같이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동정해서는 안된다는 것.

매일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아이들이 이곳을 답답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학교 안에서만 지내는 것이, 외부 세계와 단절됐다고 느끼지는 않을까. 또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집에서처럼 충분한 보살핌을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 뭐 이런 것들로 상심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조차도 나의 기준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이들의 삶까지 판단한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아이들을 ‘왜 한 순간에 내가 불행한 삶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하는 물음.

이곳에 머무는 시간은 겨우 한달 남짓, 그것도 한국에서 온 이방인인 내가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뭘 얼마나 깊이 이해 했다고 한 순간에 판단할 수 있을까. 실제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산족 아이들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지인이 되는 기숙학교에서의 삶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 혹은 대안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응당~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손전히 ‘나의 생각’ 혹은 ‘나의 기대치’ 가 아니었을까? 하는 물음이 든다.

활동이 마무리 되가는 시점에 오히려 많은 고민과 생각이 뒤따른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이곳의 아이들에게 우리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 손전히 개인적인 자기만족이나 성취감을 떠나, ‘그래서 서

로에게 무엇이 남은 걸까' 하는 의문들. 사실 이런 고민들은 활동 초반부터 이어져 오던 것들이었음에도 아직까지 애매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더 치열하게 성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현지활동이 끝나간다고 조급해하지도 욕은 넘고 있지
도 말고 차근차근 더 신중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이하나 단원

학교생활

저번 학교와는 달리 학생수가 많아 모든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기가 벅거웠다. 선생님들이 영어교육을 위하여 나는 초등학교 1,2,3학년 영어를 가르쳤다. 사실, 가르쳤더라는 말을 쓰기가 무색하다. 그저 바랬던 점은 아이들이 알파벳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알파벳을 익숙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파벳을 글자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솔직히 지금도 아이들은 ABCD를 알파벳이 아닌 그냥 그림 따라 그리기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냥 무작정 ABC송을 외운다고, 알파벳 따라쓰기를 쓴다고 정말 아이들이 영어에 익숙해지는 걸까 하는 고민과 좌절이 수없이 반복됐다. 지금은 그저 영어라는 다른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배운다는 건 멀까. 교육받는다 라는 건 또 멀까. 그리고 난 아이들에게 알파벳이라는 지식을 전달할 뿐이지만 아이들은 나에게 삶에 대해 배우고 깨닫게 한다. 내가 머리로 인식하고 생각해야만 행동할 수 있는 일들을 아이들은 서슴없이 몸으로 행동한다. 아이들은 몸에 배어있다. 서로 돕는 것. 그들은 알고 있다고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오전에 이루어 지는 음악수업.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피아노를 가르치기에는 나의 재주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팝송의 가사를 뽑아 영어로 발음하면 태국어로 받아쓰는 식으로 가사를 익혀 반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아이들은 나의 음악수업보다는 날 노래시게기를 더 선호한다. 그러면 나도 아이들에게 태국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한다. 이렇게 노래를 서로서로 부르다 보면... 나만 목이 아프다.

수업시간 외에는 약 1000인분의 식사준비를 돕기 위해 주방으로 간다. 처음 주방에 가서 오이를 깎던 충격은 잊혀지지 않는다. 깎아도 깎아도 줄지 않는 오이들. 아침을 먹자마자 점심을 준비하고, 점심을 먹자마자 저녁을 준비하고. 정말 끊임없는 재료손질. 이런 대용량의 식사준비를 보는 것도 처음, 돕는 것도 처음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당번을 정해 돌아가며 주방일을 돕는다. 특히 고학년의 남학생들이 주로 돕는데 아마 힘쓰는 일이 많아 그런게 아닌가 싶다. 덕분에 아이들의 칼 솜씨는 정말 경탄을 내지르게 만든다. 내가 전보다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손질한 재료로 아이들이 식사를 할 때, 내가 끓인 음식을 아이들이 먹을 때의 느낌. 좋다.

저녁시간, 평일에는 7시부터8시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11시에 태국전통악기를 배운다. 6명의 학생과 선생님2분으로 이루어진 악기배우는 동아리다. 그런데 악기를 배울 때, 음이 그려진 악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태향중임무'처럼 태국어로 써져 있어서 읽고 하기에는 벅차다. 다행히 피아노를 배운 덕에 음을 듣고 알 수 있어 배우기가 수월한 편이다. 허나 여전히 끼기씩 거리는 소리와 활지위법이 어렵다. 활지위법은 꼭 내 팔이 내게 아ని게 같다. 그러나 여전히 재미있다.

그 외에는 요리동아리에 가서 카놈(간식)만들기에 참여하거나, 음악실에 가서 아이들의 기타연주와 드럼연주를 듣는다. 여전히 나는 아이들이 멀하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는 관찰자다. 체험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들의 삶,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삶인 것을, 나는 체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개인소감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나 스스로 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요즘 자주 손바닥을 펼쳤다 쥐었다 한다. 비어있지만 꼭 차 있는 나의 손바닥. 하루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하루는 짐작으로, 또 하루는 열망으로, 미움으로, 좌절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비어있는 것. 그것이 내가 지양 해야 할 삶이 아닐까 싶다.

나의 생명력에 감사하고 나의 청춘에 감사한다.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생겼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 시간은 흐르고 어제처럼 오늘도 태양이 뜨고 새들이 온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매듭을 만든다.

다만, 삶이 한 순간인 것을 깨닫자. 더 많이 감사하고 행복하자.

그리고 더 많이 놀자!!!!



감사합니다~*

